

...

선비문화실

Seonbi Culture Gallery

조선의 선비들은 끊임없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탐구하며 실천했다. 선비문화실은 조선의 지도자이자 실천하는 지식인인 선비의 성장, 역할, 문화의 힘에 초점을 맞추어, 전시품이 지니는 역사적 맥락과 기능을 친절하고 상세하게 보여준다.

전시는 '조선, 선비를 기르다', '선비, 조선을 이끌다', '문화, 선비 정신을 지키다'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선비의 초상肖像에서 선비 정신을 보고, 선비들의 필수 학습서 『소학小學』에서 선비를 배우고, 올바른 관리의 지침서인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선비의 역할을 살리고, 『한국의열록』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선비정신을 느낄 수 있다.



1층

대표 전시품

● 조선, 선비를 기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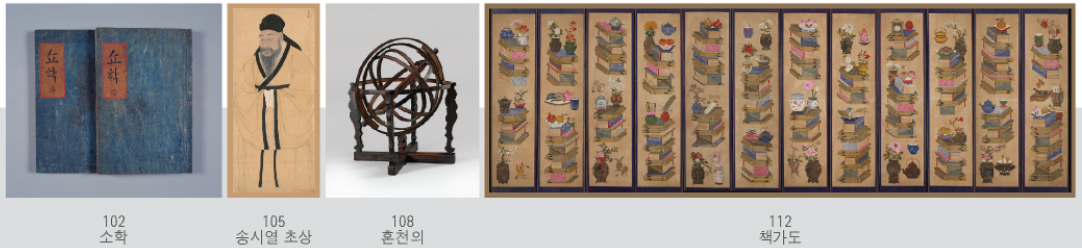
- 101 서문영 묘지명
- 102 소학
- 103 김희 호패
- 104 관복
- 105 송시열 초상
- 106 인보첩

● 선비, 조선을 이끌다

- 107 서안, 버루
- 108 혼천의
- 109 목민심서

● 문화, 선비 정신을 지키다

- 110 전주 루씨 중종 분묘 출토 명기
- 111 전주부지도
- 112 책가도
- 113 승경도
- 114 이정직 서화첩
- 115 동의보감, 약연
- 116 한국의열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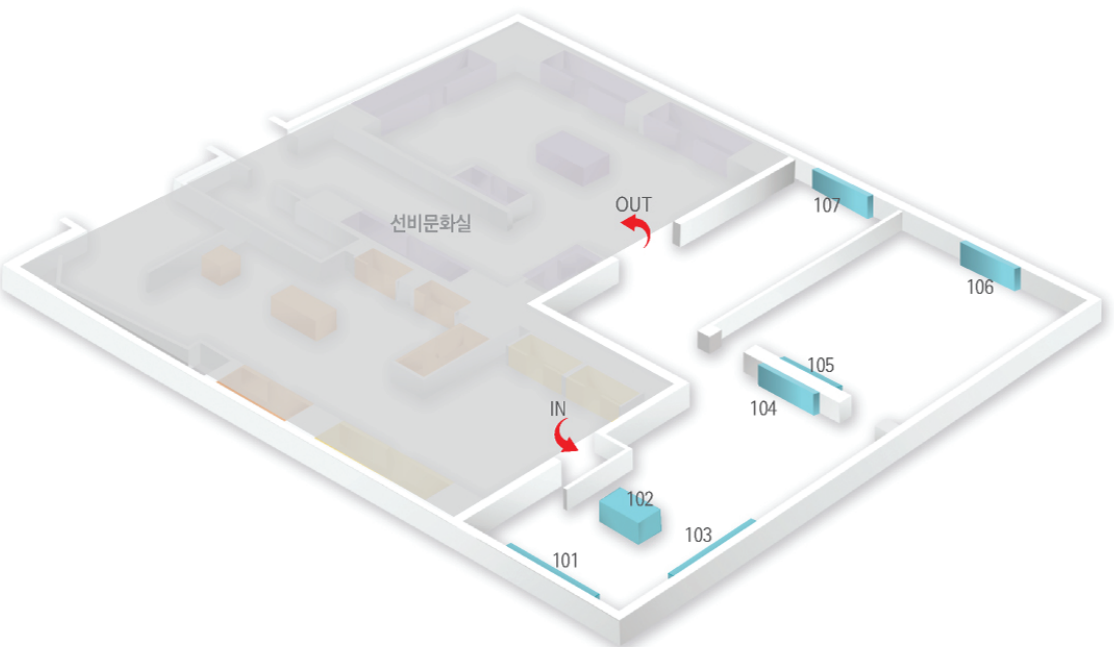
실감 콘텐츠 공간 : 선비와 자연

Seonbi in nature - Content space for realistic

"서원으로 가는 길을 거닐며 사색을 해보세요.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선비에게 다가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실감 콘텐츠 공간은 '선비와 자연'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상설전시실이 일반적으로 유물 전시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선비문화실'에서는 전시공간과 함께 선비와 자연을 테마로 한 실감 콘텐츠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여 온라인·미디어·체험의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고자 하였다. 실감 콘텐츠 전시공간은 총 7개의 테마로 구성되었다. 콘텐츠를 통해 선비와 자연의 경관을 체험해 볼 수 있게 된다. 각각의 테마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비가 바라본 별자리'에는 천문을 통해 하늘의 이치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던 선비들의 모습을 별자리로 형상화하였다. '차 한잔에 스며든 선비 정신'은 다도茶道 속에 담긴 선비정신을 다채로운 이미지와 영상, 아름다운 시詩와 함께 감상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비와 자연'은 선비와 조화로운 자연을 연출하는 반응형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서원을 바라보며' 공간에서는 대표적인 서원인 병산서원屏山書院의 정문으로 들어가는 영상을 구현하였다. '만대루에 올라서서'에는 병산서원 만대루晩對樓에서 바라보는 자연의 풍경을 표현하였다. '서원, 선비정신을 키우다'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서원의 사계절을 3면 입체 영상으로 구현하여 시각, 청각을 통해 느끼고 사색하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선비, 유람길에 오르다' 코너에는 가상의 선비가 선비의 일상, 교유와 나들이, 명산을 유람하는 모습을 김홍도를 비롯한 주요 회화작품 속에서 구현하였다. 작품에 참여하며 유람을 떠나는 선비의 모습을 통해 관람객들은 영상 몰입과 동시에 선비의 삶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층

콘텐츠 테마

● 실감 콘텐츠 공간 : 선비와 자연

- 101 선비가 바라본 별자리
- 102 한 잔에 스며든 선비 정신
- 103 선비와 자연
- 104 서원을 바라보며
- 105 만대루에 올라서서
- 106 서원, 선비정신을 키우다
- 107 선비, 유람길에 오르다

...

고고실

Prehistory and Ancient History Gallery

고고실考古室에서는 전북 지역의 선사와 역사시대 문화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는 '전북 선사문화의 시작'과 '마한, 그 시작', '마한에서 백제로', '고대 국가의 완충지 전북', '백제의 부흥, 그리고 후백제'의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품은 최근에 발굴 조사된 유물을 망라하였다. 전북 지역의 초기철기시대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완주完州 신평 유적의 전무늬거울,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전북 지역 마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창高敞 봉덕리 유적의 금동장식신발 등 2,0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북 지역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고대 문화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다.



1층

대표 전시품

● 전북 선사문화의 시작

- 101 스페썬크개
- 102 빗살무늬토기
- 103 다양한 동공구
- 104 거친무늬거울
- 105 간돌검
- 106 거푸집, 한국식동검, 전무늬거울, 구슬

● 마한, 그 시작

- 107 청동거울
- 108 완주 갈동 유적 출토 유물
- 109 단아구
- 110 원통형토기

● 고대국가의 완충지, 전북

- 111 다양한 가야 토기들
- 112 그릇받침
- 113 달머리 모양 청자항아리
- 114 굽다리긴목항아리

● 마한에서 백제로

- 115 금동장식신발
- 116 중국제 청자항아리
- 117 긴목항아리

● 백제의 부흥, 그리고 후백제

- 118 왕궁리 유적 출토 도가니
- 119 확쇠
- 120 '금자자성'명 기와
- 121 '전주성'명 기와

...

미술실

Fine Arts Gallery

미술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시각과 조형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아울러 제작될 당시의 시대정신을 담아내면서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미술실美術室에는 불교미술佛敎美術品과 도자기陶瓷器, 목칠기木漆器, 한지漢紙 공예품을 전시하고 있다.

전 남원출토 금동사리기를 포함하여 불상과 불교의식구佛敎儀式具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고려청자의 대표적 대표적 생산지인 부안扶安 유천리와 초기 청자 가마로 알려진 진안鎭安 도토리 가마 출토품, 조선시대 대표적인 분청사기 가마인 고창高敞 용산리 출토품 등이 전시되어 있어 전북의 도자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전주의 한 면을 엿볼 수 있는 한지공예품을 통해 전북지역 사람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다.



2층

대표 전시품

● 전북의 불교문화

- 202 금동보살상
- 204 전 남원 출토 금동사리기, 전부상
- 205 향완
- 206 전 낙수정 출토 범종
- 207 식탁
- 208 용무늬대야

● 전북의 도자문화

- 209 청자편
- 210 청자 꽃모양 접시
- 211 청자 고리무늬 의자
- 212 청자 참외모양 주전자·청자 전과 받침
- 213 청자편
- 214 고려백자편
- 215 청자 잔과 받침
- 216 청자 국화무늬 접시
- 217 청자 포도무늬 주전자
- 218 청자 용무늬 매병
- 219 분청사기 물고기무늬 항아리

● 목공예와 한지공예

- 220 경상
- 221 태극무늬 부채

